




†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하모니 님들~

오월은 성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더욱 표현하는 **성모성월**입니다.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사랑, 그리고 "주님의 뜻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새기며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은총의 5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또한 기쁜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달이죠? 어린이날인  5/5일엔 동심을 기억하고, 어버이날인 5/8일엔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하세요~ 

5월의 첫째주 공지 드립니다.

지난 행사 - 감사합니다!  (사진은 밴드에)

- 1) **4/30 (토): 본당 신부님과 회의식.** 하모니 9명, 뜨락회 10명과 본당 최 신부님의 회의식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해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 2) **5/1 (일): 하모니 공식 소개 및 음료수 대접.** 공지 시간에 하모니를 교우분들께 소개 드렸으며, 모든 교우분들께 아침+교중 미사후 친교실에서 식혜와 수정과를 대접 했습니다. 음료수(288개)와 배너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하모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많은 교우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80 후원금도 주셨습니다. 감사히 좋은 활동에 보태겠습니다.

지난 행사 사진이 밴드(BAND)에 올라와 있습니다. 꼭 방문해서 보세요. 아직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속히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초대 링크: <http://band.us/n/a4a8Q4J3Kf0fw>)**

성모의 밤 - 5/7 (토)

저녁 8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만남의 성경 모임 - 5/8 (일)

다음 모임은 **5/8일 회합중**이며 주제는, '구원의 어머니인 성모님' 입니다 (루가 1,26-55). 성모성월을 맞이해 성모님에 대해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책 지참하세요.

환경미화의 날 - 5/14 (토)

청년들의 공간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 소망방과 대건회관 (및 창고)을 하모니, 뜨락회가 함께 청소합니다. **5/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모여서 우리들의 공간을 청결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짬!!**해 주세요.

복가주 성령대회 - 5/21 (토)

일시, 장소 : 5/21(토) 오전 8시 반, SF 성 마이클 성당

주제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참가비 : \$25

관심있으신 분들 함께 차를 타고 가면 좋겠습니다. 회장단에게 알려 주세요.

2016년 연수 (7월 30-31일)

7월30-31 (토-일) 1박2일로 산타크루즈 바닷가 옆에 위치한 Villa Maria del Mar 피정센터(<http://www.villamariadelmar.org>)에서 2016년도 하모니와 프락회의 연수가 있을 예정이니 **신청해 주십시오.**

**신부님께서, '피정'은 기도와 성체조배, 조용한 시간을 통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묵상하는 시간이 중심이 되며, '연수'는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고 배우게 되는 워크샵 형태로 진행되는 일정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올해 일정의 성격상, 그동안 '피정'으로 칭했던 7/30-31일 일정을 '연수'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좋은이웃 (첨부파일)

좋은 말씀과 나눔이 담긴 춘천교구에서 제작한 간행물 '좋은이웃'을 소개합니다. 좋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위 분들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영명축일 - 축하합니다

5월 3일 - 안해준 야고보

5월 생일 - 축하합니다

5월 11일 - 김광찬 바오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님 말씀

미사 전 복음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 하시길 바랍니다.

5월 8일 (주님승천대축일) 주일 복음말씀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4,46ㄴ-5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힘 내세요! 아자!

2016 하모니 회장단

전진영 베로니카 (510-229-2464)

이의천 베드로 (415-216-3917)

박보라 율리아나 (917-817-8908)

하모니 harmonycatholic@gmail.com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enter

6226 Camden Street

Oakland, California 94605

T 1-510-553-9434

www.oakcc.org

2 Attachments

